

●●●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방역의 ABC로 돌아가자!!

- AI 등 가축질병 전담부서 신설 계획 표명 -



### ▲ 강문일

1980 전남대 수의과대 졸  
1987 서울대 수의과대학 박사(병리학)  
1982-92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 입사(연구관, 연구사)  
1995-98/02-04 검임연구원(조류질병과/병리과)  
2001 전남대 수의과대학장  
2005.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양계업계를 7차례나 강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월을 넘기면서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I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3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하면서 AI에 이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본고는 2월말로 AI특별방역기간을 보낸 시점에서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의 검역원 사업 방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 AI 예방에 최선의 노력 경주

검역원은 지난 1909년 동물검역소(당시 수출 검역소)가 처음 창설된 것이 모체이다. 1911년에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수의과학연구소(당시 우역혈청제조소)가 세워졌고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해오다 1998년 농림부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검역원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원과 5개 지역에 12출장소가 있으며, 605명이 근무하면서 검역, 검사는 물론 가축질병 예방,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계분야에 있어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막고, 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진단과 방역활동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문일 원장은 지난 1982년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에 입사한 후 병리과 등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1991년부터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강원장은 2005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검역원을 이끌어오면서 각종 질병예방 및 검역활동을 강력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강문일 원장은 다각적인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재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기도 하였다.

### 감염경로 철새 추정

강문일 원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의 발생동향을 볼 때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임을 강조했다. 검역원이 3월부터 구제역특별기간으로 전환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은 연장선상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뚜렷한 감염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검역원에서는 철새에 의한 감염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03년도에 나타났던 HPAI 유전자형과 2006년과는 전혀 다르며, 이번에 발생한 유전자형이 지난해 5월 중국 칭하이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룹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소 전경

또한 지난 12월 천안과 청원지역 하천의 야생철새로부터 HPAI가 나왔던 사실을 놓고 볼 때에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료에 의한 전파가능성, 해외방문객, 축산물 유통 등에서도 예외성을 두지 않고 추적해 가고 있음을 밝혔다.

### 차단방역이 최선의 길

강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사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사고'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들의 일부가 현대식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최종적으로 질병원을 옮기는 주요인은 농장출입자이기 때문에 농장주변의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에 힘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역으로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발판소독조 등 기본적인 소독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HPAI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염계의 계분내에는 다량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분량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이동 철은 누구도 차단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검역원은 철새에 대한 검사를 철새 도래지 및 하천을 중심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 강문일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때마다 현장에 방역, 검사 요원을 급파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현황을 점검하였다.

## 살처분 범위 신중고려, 최후의 수단으로 백신접종 준비도

검역원은 이번에 발생되었던 6개 농장의 경우 3km이내의 위험지역의 모든 감수성 있는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강문일 원장은 이번에 취해졌던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발생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만약 대규모 농장들이 과밀된 지역일 경우에 3km까지 확장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H5백신 사용에 대해서도 백신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및 선진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금년부터 저병원성 AI백신(H5N2)이 농가들에게

보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H5N3를 이용하여 H5N1을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을 개발하여 만일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백신접종시 잠복기, 질병확산 우려와 백신접종시 청정국 지위확보가 어렵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임을 밝혔다.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담부서 설치 필요

강문일 원장은 금년 이후부터는 가축질병 방역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을 피력하면서 강력한 질병방역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 및 조직적인 질병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AI는 물론 모든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발판 소독조 운용, 출입 후 탈의·청결·소독 등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ABC로 돌아가자고 강조하였다.

검역원은 금년에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관리를 위해 동물약품관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실천기반 강화에도 노력해 가고 있다. 강문일 원장은 검역원 내에 설치된 종합민원실을 '고객감동센터'로 개편하는 등 고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힘쓰는 등 세세한 부분에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생산자들과 벽이 없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 원장은 양계인들에게 AI 예방을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직적인 질병정책과 병용될 경우 부스터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